

Edgar Allan Poe의 “The Raven”과 이태준의 “까마귀”

김 명 렬

1.

이태준의 “까마귀”가 에드거 앨런 포우(Edgar Allan Poe)의 “The Raven”¹⁾의 영향을 받은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소설의 주인공이 폐결핵을 앓는 여인을 만난 후 그녀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하면서 포우와 그의 시 “The Raven”과 그 시에 나오는 인물인 레노어(Lenore)를 언급하는 등, 그런 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포우의 시가 “까마귀”의 구상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다른 데에서도 발견된다. 이태준은 1936년 초에 잠시 동경을 들른다. 그때의 느낌을 “幾種新書 一枝蘭”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발표한 글에 이런 대목이 있다.

마침 백만회양화전도 구경할겸 그화장을 가진 은좌의 사국옥서점으로 갔다. 한참 신판서를 구경하다가 황면도인일하결지개의 역인 에드가·아란·포-의 시 『대아(大鴉)』 한권을 샀다. 솜과 낙엽으로 만든 듯한 거칠고도 부드러운 황지에 박은 책인데 권두에는 에드알·마네 필인 까마귀의凸판과 동판이 들어 있다. 꽤 정역(精譯)한 것인 듯 권미에 ‘予の作詩休止期に於ける創作的嗜感を感興も譯詩すなはち之也’란 후기가 있다.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29일)

시간적으로만 보면 그가 동경에 들린 것이 “까마귀”를 1936년 1월 『조광』지에

1) “까마귀”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포우의 시는 영문으로 표기한다.

발표한 직후이므로 “The Raven”이 “까마귀”의 구상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문맥과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보면 그렇지 않다. 그는 인용문에 앞서 서울의 서점에서는 좀처럼 대할 수 없는 장정본들을 동경의 서점에서는 많이 접할 수 있는 즐거움을 피력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장정본들 중에서 日夏耿之介가 “The Raven”을 번역한 『대아』를 구입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당시만 해도 동경은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한번 간 기회에 그는 필경 여러 권의 책과 장정본을 샀을 직한데 만약 그렇다면 그 중에서 『대아』만 언급했다는 것은 더 더욱 특이한 것이 된다. 이런 점들과 연관하여 생각하면 그 때가 “까마귀”를 탈고한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라는 것은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을 오히려 강화해 주는 사항이 된다. 더구나 그가 포우의 시를 처음 대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에서 언급한 정도로 익히 알고 있는 터에 구태여 장정본을 구입했다는 것은 자기 단편의 탈고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로써 포우의 시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태준이 인용한 日夏耿之介의 “후어(後語)”의 일부는 이 시가 이태준으로 하여금 단편 “까마귀”를 쓰게 한 한 동인이었다는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후어”는 전부해서 몇 줄 안되는 짤막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줄 인용한 것이 “나의 창작적 열정을 일으킨 번역시가 바로 이 시이다”라는 내용이라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日夏耿之介는 번역가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시를 썼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위의 말은 그가 “The Raven”에서 창작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 된다. 이태준이 이 말을 인용한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강력히 암시하고 있다. 이상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위의 인용문은 단편 “까마귀”가 그 구상에서부터 “The Raven”의 영향을 받은 것을 이태준 자신이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까마귀”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태준이 이 단편을 쓰면서 “The Raven”의 영향만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포우의 다른 글들도 함께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도 “까마귀”와 “The Raven”과의 관계에 국한하지 않고 “까마귀”에 끼친 포우의 영향으로 넓혀 잡은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까마귀”에 나타난

Poe의 영향을 탐색하면서 이태준이 그런 영향을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2.

우선 “The Raven”과 “까마귀”와 의 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The Raven”의 내용을 간략히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시는 사랑하는 여인을 사별한 남자가 어느 겨울날 밤에 일어났던 괴이한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시체가 과거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현재로 바꾸어 설명하겠다.

화자는 황량한 12월 어느 날 한밤중에 세상에 잊혀진 학문이 담긴 옛날 기서(奇書)들을 탐독하다 지쳐서 졸음에 빠진다. 그는 그런 책들에 몰입함으로써 사랑하는 레노어를 상실한 슬픔을 달래려했던 것이다. 그 때에 그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 문을 열어 본다.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적막한 허공에다 대고 “레노어?”하고 가만히 불러본다.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오자 또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 그 소리가 창문계에서 나는 것을 감지하고 창의 덧문을 열어 쫓히자 까마귀 한 마리가 어둠으로부터 날아들어 와서 방문 위, 아테네의 흉상 위에 앉는다. 화자가 이 새에게 장난 삼아 이름을 묻자 뜻밖에도 까마귀는 “네버모어(Nevermore)”라고 대답했다. 이 기이한 대답에 놀란 화자는 이 새의 정체에 대해서 명상하면서 날이 새면 이 새도 날아가리라고 혼자 말을 한다. 그러자 새는 또 “결코 안 날아갈 것이다(Nevermore)”라고 답한다. 다시 화자가 망우약(忘憂藥)을 마시고 레노어에 대한 생각을 잊겠노라고 독백했을 때에도 새는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Nevermore)”라고 말한다. 그 이후 길리아드에 그의 고통을 덜어줄 진통제가 있으나, 천국에 가서 레노어를 다시 만날 수 있느냐는 화자의 질문에 새는 일 관해서 똑같은 말로 부정적인 대답을 한다. 그가 소망하고 회구하는 바를 모두 부정하는 이 대답에 격분한 화자는 급기야 새더러 자기의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지만 새는 여전히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Nevermore)”라고 말할 뿐이다. 결국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이 까마귀의 그림자로부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말로 시를 맺는다.

이같은 내용과 이태준의 “까마귀”를 비교해 보면 분명히 비슷한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남자 주인공들이 공통점을 보인다. “The Raven”은 학자인 주인공의 독백으로 되어 있는 시이니까 주인공 자신을 시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까마귀”의 남자 주인공도 스스로 소설가를 자처하는 사람이므로 이 둘은 다 문필가이다. 뿐만 아니라 둘이 다 세상에서 소외된 문사들이라는 점도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외에는 내용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점은 나중에 논급하기로 한다.

게다가 이들은 둘 다 상고취미(尙古趣味)를 갖고 있다. 포우의 시의 화자는 이상하고 진기한 옛날 책을 탐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시어도 대단히 의고적(擬古的)이고 시에 성서와 로마신화의 인유(引喻)들을 많이 사용하여 시가 대체적으로 고풍스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태준의 상고취미는 익히 알려진 것으로 “까마귀”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그것은 특히 주인공이 목을 추성각(秋聲閣)의 묘사에 잘 나타나 있다. 낙관이 있는 사군자와 기명절지, 추사체(秋史體)의 현판, 그리고 파랗게 녹슨 풍경에 대해 언급에 이어 방에서 내려다보는 경관이 묘사된다.

또 미닫이를 열면 눈 아래 깔리는 경치도 큰사랑만 못한 것 같지 않으니, 산기슭에 나뭇이 섰는 수각과 그 밑으로 마른 연잎과 단풍이 잠긴 연당이며 그리고 그 연당 언덕으로 올라오면서 무릉석으로 석가산을 모으고 잔디밭 새에 길을 돌린 것은 이 방에서 내려다보기가 그중일 듯 싶었다. (『돌다리』, 20 면)

그림과 현판에 대한 언급이 고완에 대한 그의 심취를 반영한다면, 위의 인용문은 그의 처사 취미(處士趣味)를 드러내 준다. 이것들이 자아내는 상고적인 정취는 문단 끝에 가서 “태고(太古)가 깃들이는 듯한 그윽한 경치(20 면)²⁾”라는 말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두드러진 공통점은 여인의 죽음과 까마귀일 것이다. 우선 두 작품은 모두 까마귀가 죽음을 연상시키는 불길한 새라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또 두 작품의 여주인공들도 상당히 닮았다. 레노어는 세상에 드문 미

2) “까마귀”로부터의 인용은 모두 깊은샘에서 1995년에 출간한 이태준저 『돌다리』가 그 출전임. 이후는 면수만 기록함.

인으로 되어 있는데, 추성각에 나타난 폐결핵을 앓는 여인도 용모가 단정하고 상당히 매력적인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레노어가 무엇 때문에 요절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포우가 필경 레노어의 모델로 삼았을 그의 사랑하는 아내 버지니아(Virginia)가 그 시를 쓸 당시 폐결핵으로 쇠잔해져 있을 때 이므로, 그런 면에서도 둘은 매우 비슷하다.³⁾

이처럼 이 두 작품은 주요 인물들과 사건이 비슷하여 이런 것만 보면 그 내용과 성향도 같으리라는 예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여러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대단히 다르다. 포우와 이태준 사이의 영향관계는 어쩌면 이런 상이성에서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이성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The Raven”이 어떤 시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위에 간단히 소개한 줄거리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시는 대단히 괴기스런 시이다. 우선 화자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서재에 혼자 앉아 죽은 애인을 생각하는 상황부터가 그런데다가 까마귀가 날아들어 와서 화자의 질문에 대답을 한다는 것이 더욱 그런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러나 이 시의 매력은 그런 괴기스럽고 슬픈 내용이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도록 표현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아름다움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이 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의 핵심이 되므로 그것은 이 시와 단편 “까마귀”와의 관계를 밝히는 데에도 필수적인 선행작업이 될 것이다.

포우는 “창작의 원리(The Philosophy of Composition)”라는 글에서 자신의 시작 과정을 바로 “The Raven”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 시를 예로 드는 이유로 “[이 시의] 어느 한 가지도 우연이나 직감에 의한 것이 없으며, 이 시의 창작은 마치 수학문제를 풀 때의 정확성과 엄정한 순서로 단계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다.⁴⁾ 그러나 이런 시작 원리는 이 시에만

3) J. R. Hammond, *An Edgar Allan Poe Compani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1, p. 158 참조.

4) ...no one point in its composition is referrible either to accident or intuition--that the work proceeded, step by step, to its completion with the precision and rigid consequence of a mathematical problem. *Edgar Allan Poe: Essays and Reviews*, The Library of America, 1984, pp. 14-15. 『창작의 원리』로부터의 인용은 모두 이 책이 출전임. 이후로는 면수만 기록함.

국한된 것은 아니라 모든 시, 나아가 모든 예술 작품에 다 적용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은 작가의 세심한 계획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성된 것이 지 결코 영감이나 우연에 의해 만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주장이다.

이어서 그는 “오직 미(美)만이 시의 정당한 영역이다”라고 말한다.⁵⁾ 그런데 사람들이 미를 언급할 때 의미하는 것은 어떤 속성(a quality)이 아니고 하나의 효과(an effect)이며, 이런 효과는 적절한 소재, 또는 사건(an incident)과 어조(a tone)에 의해서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최고조로 발전되면 예민한 영혼으로 하여금 언제나 눈물을 짓도록 감동시키[므로]”, 시에 가장 적합한 어조는 애상적인(melancholy)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⁶⁾ 적합한 소재, 또는 사건도 이와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애상적인 사건은 죽음이므로, 그것과 미가 합치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이 가장 적합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요건에 맞추어서 포우는 “The Raven”을 쓴 것이다. 그는 이 이외에도 그가 기도하는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기획하여 시를 “만들어” 냈던 것이다. 예를 들어, 후렴이 될 가장 애상적인 단어를 찾다 보니까 “nevermore”로 귀착되었고, 화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대해 그 단조로운 대답을 반복하는 주체는 사람보다 동물이 적합하므로 그런 동물로 처음에는 앵무새를 생각했으나 구관조처럼 간단한 말을 할 수 있는 까마귀가 훨씬 더 분위기에 맞아서 그것으로 정한 것이다. 이처럼 포우는 독자로 하여금 미를 느끼게끔 하기 위하여, 그의 표현을 빌자면 “영혼의 그 강렬하고 순수한 고양(저자 강조)”을 느끼게끔 하기 위하여, 모든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이다.⁷⁾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고려할 바는 레노어의 죽음이다. 일반적으로는 포우가 사랑하던 여인을 잃고 난 다음 그 비통함을 레노어를 통해 토로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포우가 화자를 통해 토로하고 있는 상실의

5) ...that beauty is the sole legitimate province of the poem, p. 16

6) Beauty of whatever kind, in its supreme development, invariably excites the sensitive soul to tears. p. 17.

7) ...that intense and pure elevation of *soul*, p. 16.

비에는 상당히 사실적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런 면에서 이 시는 어느 정도 현실과 맥이 닿아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그가 사랑한 아내는 병중이기는 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⁸⁾ 그러므로 레노어를 죽은 여인으로 만든 것은 포우의 전기적 사실과는 무관한 것이며 오직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그가 만든 허구인 것이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포우는 문학적 효과를 위해서 여인의 죽음을 도입한 것이고, 미를 위해서 비록 허구이기는 하지만 그녀를 죽인 것이다.

또 그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죽음이 주는 비애에 신비와 괴기성을 더하기 위해서 까마귀로 하여금 말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사를 동원했던 것이다. 예컨대, 비단 자색 커튼이 바람에 서걱거리는 소리가 “일찍이 느껴 본 적이 없는 기이한 공포로(with fantastic terrors never felt before)”로 그를 사로잡았다든지, “죽어가는 숯덩이들의 혼령이 마루 위에 일렁거렸다(each separate dying ember wrought its ghost upon the floor)”라든지 하는 구절들이 그런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돕기 위해서 그는 사건의 장소를 완전히 고립시켰다. 포우 자신이 “창작의 원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즉 화자와 까마귀가 대화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모색하면서, “외부와 단절된 사건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저자 강조)”고 말하고 있다.⁹⁾ 왜냐하면 이런 사건은 일상적 현실에서 단절된 특수한 상황에서나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시의 어느 것도 바깥세상과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은 없다. 레노어는 “천사들이 레노어라고 부르는(whom the angels name Lenore)” 여자이고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이름 없을(Nameless here for evermore)” 여자이다. 그녀는 “희귀하고 빛나는 처녀(the rare and radiant

8) 이태준도 이점을 잘못 알고 있다. 그는 “까마귀”에서 레노어의 죽음을 실제 포우의 애인의 죽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또 “레노어의 망령이 스프르 방 한구석에 들어서곤 했다 (29 면)”는 것은 포우의 단편 “Ligeia”의 한 장면인데 이태준이 이 둘을 혼동하고 있다.

9) ...a close *circumscription of space* is absolutely necessary to the effect of insulated incident. p. 21.

maiden)”라고 만 묘사되어 있을 뿐이고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의 여자인지, 그녀의 가족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외부세계와 완전히 절연되기는 화자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고서를 읽고 시를 쓰지만, 그의 실제 생업이나 가족, 친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심지어 이 시의 무대가 되고 있는 집조차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밖에는 어둠이 있을 뿐이어서 거기에 이웃이 있는지 동네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

이상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면, “The Raven”은 생명을 희생해서까지 미만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대단히 탐미적이며, 그것을 위해서 일상적 현실의 한계를 쉽게 뛰어 넘는다는 면에서 환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작품이다. 이 시의 이같은 성격과 포우의 탐미적 태도에 대해서는 이태준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宮永孝에 의하면 “창작의 원리”가 일본에 소개된 것이 1893년이고 그후 많은 번역판들이 있었을 것이므로 그가 읽었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⁰⁾ 특히 “The Raven”의 후렴과 “까마귀”에서 까마귀 소리의 묘사 사이의 유사성은 이런 개연성을 더욱 강하게 해준다. 포우는 슬픈 내용에 어울리는 비감한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는 후렴 끝의 소리가 “울림이 크고 지속적인 강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정한 다음 그에 맞춰서 장모음 “o”와 “r”이 결합된 “more,” “Lenore,” “Nevermore”등을 사용하였다.¹¹⁾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의미심장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마지막 것으로 그것은 바로 까마귀가 내는 소리로 되어 있다.

이태준은 그의 단편 속에서 까마귀의 소리를 묘사하면서 두 번 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다. 첫 번은 주인공인 소설가가 추성각에 처음 온 날 저녁 청지기와 이야기하는 도중에 듣는 까마귀 소리인데, 그는 그것을 “까르르.....”하고 GA 아래 R이 한없이 붙은 발음을 하는 것이다 (21 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단편의 마지막 문장을 “...이따금씩 까르르 하고 그 GA 아래 R이 한없이 붙은 발음을 내곤 하였다(34 면).”로 맺고 있다. 까마귀의 소리를 로마자로 표기한 것도 특이하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첫 부분과 맨 나중이라는 가장

10) 宮永孝, 『ボ-を 日本—その 受容の 歴史』, 彩流社, 2000, 273-275 면 참조.

11) ...must be sonorous and susceptible of protracted emphasis. p. 18.

중요한 위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태준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것을 모음과 “1”의 배합으로 표시한 것은 포우의 경우와 너무 흡사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사실 이태준이 포우의 비평문들을 읽은 증거는 그의 글의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무서록』에 실린 “단편(短篇)과 장편(掌篇)”에서 포우가 단편의 시조였으며 “그[포우]는 장편(長篇)을 읽거나 쓰거나 하기에 누구보다 권태를 느낀 작자였다.”고 소개하고 있다.¹²⁾ 이것은 너태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되풀이해 들려주는 이야기들(Twice-Told Tales)』에 대한 포우의 서평을 상기시킨다. 이 글에서 포우는 단편의 길이는 읽는 동안 방해받거나 권태를 느끼지 않도록 삼십 분에서 한 두 시간에 독파할 수 있는 정도가 적당하다는 유명한 말을 하는데 이태준의 발언은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이태준은 “인물, 행동, 배경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면 인물에만 치중하고, 행동이면 행동, 배경이면 배경에 강조해서 단일적인 효과를 거두는 것이 단편의 약속이다 (59 면, 필자 강조).”라고 단편을 정의하는데, 이것도 포우의 같은 글의 일부를 반향하고 있다.

기교가 능한 문학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하자.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는 그의 생각을 이야기 속의 사건에 맞도록 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이루어 낼 어떤 독특한, 아니면 단일한 효과를 숙고하여 생각해 낸 다음, 사건들을 만들어 낸다--다시 말해, 이 미리 생각한 효과를 가장 잘 이루어 낼 수 있는 사건들을 결합한다. (저자 강조)¹³⁾

두 인용문이 다 단편에 관한 것들이며 특히 이태준의 글은 포우를 언급한 다음에 나오는 문단인데 둘 다 “단일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둘 사이의 영향관계를 밝혀주는 증거라 하겠다.

12) 이태준, 『무서록』, 깊은샘, 1994, 59 면. 이태준의 비평적 글의 인용은 모두 이 책이 출전임. 이후로는 면수만을 기록함.

13) A skilful literary artist has constructed a tale. If wise, he has not fashioned his thoughts to accommodate his incidents; but having conceived, with deliberate care, a certain unique or single effect to be wrought out, he then invents such incidents--he then combines such events as many best aid him in establishing this preconceived effect. p. 572.

이런 방증과 정황으로 보아 이태준이 “까마귀”를 집필하기 전에 포우의 “창작의 원리”를 읽은 것이 확실시된다. 그것은 곧 이태준이 “The Raven”에 표출된 포우의 문학적 성향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다시 말해서 이태준이 포우의 탐미적, 환상적, 비현실적인 문학적 성향을 그대로 수용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 나름의 세계를 구축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두 작품의 인물과 배경등을 다시 비교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두 작품의 여주인공이 좋은 비교대상이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레노어는 구체성이 없는 거의 추상적인 관념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녀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움과 광휘의 표상일 뿐이며, 그나마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까마귀”의 여주인공은 비록 죽을병에 걸려 있지만 대단히 생생하게 살아 있는 인물이다. 그것은 주로 소설가와 나누는 그녀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 한때 병드는 것을 미화하고 선명한 적이 있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소녀였음을 스스로없이 말할 정도로 그녀는 발랄한 성격을 가진 여인이다.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되자 그녀는 그때의 생각이 모두 허상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선의 상여에 실려 가고 싶지 않고 흰말들이 끄는 마차를 타고 싶든지 공원 같은 묘지에 묻히고 싶든지 하는 발언 등은 아직도 그런 소년티가 남아 있음을 말해 준다. 모든 것을 무화하는 죽음과 이런 허망한 애착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것들 사이의 괴리는 인간이 끝내 떨쳐버릴 수 없는 삶에 대한 집착을 극적으로 드러내 준다.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이미 죽은 사람으로 따돌리는 것에 대해 노여워하는 것이나,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습도 죽음을 끝내 거부하려는 그녀의 애처로운 몸부림을 부각해 준다. 이런 묘사들로 인해 “까마귀”의 여주인공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단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인물로 제시된다.

이런 차이는 두 작품이 보이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레노어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미화되고 이상화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The Raven”에서

는 죽음도 미화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포우에게는 죽음이 그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화자가 비탄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그가 비탄해 마지않는 표면적인 이유는 죽음이 레노어를 앗아갔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이유는 그런 비탄을 통해서 그가 기대하는 효과, 즉 숭고한 아름다움을 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그런 비감함을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탐닉하고 있는 것이다. 까마귀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화자의 심정에 대해서 포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연인은...반은 미신에서, 그리고 반은 자기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게 하는 그런 절망감에서 그 질문들을 한다. 즉, 그 새가 예언자적, 아니면 악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적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 새가 기계적으로 배운 바를 단지 반복할 뿐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Nevermore”라고 할 대답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이기에 가장 감미로운 슬픔을 느낄 수 있게끔 질문을 꾸미는 데에 일종의 광적인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던지는 것이다.¹⁴⁾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자가 까마귀에게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일종의 자학인 것이다. 그가 자학에 탐닉하는 이유는 그것에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죽음도 바로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므로, 말하자면 환영해야 할 것이고 탐닉해야 할 것이 된다.

그러나 이태준의 작품에서의 죽음은 이와 전혀 다르다. 그것은 미를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더더구나 탐닉할 것은 아니다. 죽음에 직면한 여인에게 일종의 처연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에도 그런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에는 가냘픈 꽃이 꺾어지는 모습에서

14) ...the lover...propounds them[queries] half in superstition and half in that species of despair which delights in self-torture; propounds them not altogether because he believes in the prophetic or demoniac character of the bird(which, reason assures him, is merely repeating a lesson learned by rote), but because he experiences a frenzied pleasure in so modelling his questions as to receive from the expected “Nevermore” the most delicious because the most intolerable of sorrow. p. 19.

느끼는 애처러움이 있을 뿐이지 결코 탐닉할 즐거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The Raven”에서와는 달리 죽음은 이 작품에서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폐결핵을 앓는 여인에게서 모든 낭만과 즐거움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서부터, 심지어 그녀의 애인으로부터도 그녀를 격리시키는 현실적인 힘으로 제시되고 있다.

“내 피까지 먹고 나하고 그렇게 가깝게 해도 그는 저대로 건강하고 저대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니깐요. 머리가 좋으면 이발소에 가구, 신이 해지면 새 구둣발 맞추고, 날마다 대학도서관에 다니면서 학위 받을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저하곤 길이 달라요? 전 머리 속에 상여, 무덤 그런 생각뿐인데.....” (30 면)

죽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혹하고 잔인한 것을 실감케 하는 것은 모든 일상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 그것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죽음은 그런 일상의 삶 가운데에 있는 한 개인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차단시킴으로써 절망과 공포를 가중시키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그것은 그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 수 있다는 애인으로부터 까지도 그녀를 소외시킨다. 다시 말해서 죽음은 그녀에게 절대고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 저항할 수 없는 힘이 그녀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만 것이다. 이처럼 그것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현실인 것이다. 또 그것은 모든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생명의 파괴자이며 산 자로서는 끝까지 거부하여야 할 악인 것이다.

두 작품이 보이는 죽음에 대한 이런 차이는 까마귀에 대한 취급에서도 차이를 빚는다. “The Raven”의 까마귀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어두운 하계의 바닷가(the Night’s Plutonian shore)”에서 온 새라는 수식어로 인해 실제의 새라기보다는 죽음의 사자 같은 초현실적인 존재라는 인상을 준다. 이런 느낌은 그 새가 사람의 말을 할뿐만 아니라, 그의 말이 비록 외마디일 망정 화자의 연달은 질문에 훌륭한 대답이 되면서 점점 더 고조된다. 그러다가 급기야 화자가 “내 가슴으로부터 너의 부리를 뽑아 가라(Take thy beak from out my heart)”라고 소리 칠 즈음에는 이미 실제의 새가 아니라 하나의 은유나 상징으로 바뀌어 있다. 이처럼 포우의 까마귀는 창문으로 날아 든 구체적인

세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화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제압하는 초현실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태준의 까마귀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진 현실의 새이다. 그것은 돼지우리의 밥 찌꺼기를 찾아 먹고 나무 위에 무리 지어 앉아 까악 까악 우는 자연의 새이다. 사람과 대화하며 사람에 군림하는 신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면 피하려 들고 먹이를 주어 유인하여도 경계심을 풀지 않는 동물일 뿐이다. 특히 포우의 시에 나오는 까마귀는 죽음의 사자 같은 일종의 불사조가 되어서 시의 화자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산 자의 숙명으로부터도 벗어난 것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이태준의 단편에 나오는 까마귀는 남주인공이 적당히 만든 활과 화살에 맞아 죽는,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준의 단편에서 까마귀가 죽음의 상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자기들의 생각을 그것에 투사한 것일 뿐이고, 까마귀 자체는 그런 대접을 받을 아무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없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염두에 두고 두 주인공들을 비교해 보면 두 작품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The Raven”의 화자가 모든 면에서 바깥 세상과의 연관을 끊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심지어 그의 집도 인간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곳에서 세상이 이미 잊어버린 학문의 세계에 몰입하고 죽은 애인만을 생각하는 태도는 현실과 등을 지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는 필경 마약을 복용하고 있다. 길리아드의 진통제에 대한 언급도 미심적지만, 그보다 니펜시(nepenthe)라는 일종의 망우약을 먹겠다는 구절은 그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먹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를 그는 레노어를 잊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시의 분위기로 보아 환각 상태에 빠지기 위한 것임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The Raven”의 화자는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마약을 통한 환각상태에 빠짐으로써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이다.

“까마귀”의 주인공도 세상으로부터 다소 소외된 사람이다. 그러나 이 소설

가는 자의적으로 세상과 등진 것은 아니다. 그가 “괴벽한 문체를 고집하여” 독자가 별로 없다는 것은 사회와 등지려는 그의 고의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문학적 신념에 충실하려는 태도 때문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그를 경원하는 것이지 그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태준이 쓴 “누구를 위하여 쓸 것인가”라는 글의 일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자신을 알면 모든 일에 있어 현명한 일이다. 작품은 개인의 뿌리에서 피는 꽃이다. 평론가는 여론에 무섭을 탈 경우가 많으리라. 그러나 작가에겐 여론이 어찌지 못할 것이다. 자기를 한번 정확하게 진단한 이상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투로 써서 천하에 뿔뿔이 내어놓을 것이다. 이상의 작가들에게서 그 뿔뿔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나는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다. 목전에는 독자가 적어도 좋다. 아니 한 사람도 없어도 슬플 것이 없다. 그 고독은 그 작자의 운명이요 또 사명이다. 고독 하되, 불리하되, 자연이 준 자기만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정치가나 실업가는 가져 보지 못하는 예술가만의 영광인 것이다. (50 면)

이 글은 이상과 김유정의 추도회를 가진지 며칠 후에 쓴 것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1937년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이 글과 “까마귀” 사이의 시간적 차이는 기껏해야 일년여 밖에 안되므로 이 때 이태준의 심경은 “까마귀”를 쓸 때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이 무방할 것이다. 특히 “자기의 것을 자기의 투로 써서” 독자가 하나도 없어도 좋다는 발언은 “까마귀”의 주인공이 “괴벽한 문체를 고집하여” 독자가 별로 없다는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또 작가가 자기를 지키느라고 겪는 고독은 작가의 사명이라고 한 데에는 일종의 비장함마저 엿볼 수 있게 하며, 시류를 좇아 좌고우면하지 않고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을 예술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한 데에는 예술가의 고고한 자존심을 보여 주는데, 이런 것들은 고난을 무릅쓰고 오직 외길로 매진하는 “까마귀”의 주인공의 고집과도 통한다. 사실 이 인물은 이태준과 무척 비슷하다. 소설가라는 것이 그럴 뿐 아니라 상고취미도 이태준을 빼어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태준은 “까마귀”의 주인공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까마귀”는 이태준 자신의 글쓰기에 관한 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의미를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서 먼저 이태준의 문학관

을 일별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인용문이 나온 글의 다른 부분에서 그는 “소수의 독자만이 당신 자신의 기질에 맞는 최선의 형식으로 무어든지 아름다운 것을 지어 달라 할 것이다(51 면, 필자 강조)”라는 모피상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런 사람들만이 작가가 관심을 가져야할 독자라고 주장한다. 또 “소설가”라는 글에서는 소설을 “사람의 생활을 극적인 내용이게 미가 있는 형식이게 기록한 것 (72 면, 필자 강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발언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준에게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것의 예술성, 다시 말해서 심미적인 완결성이다. 그가 여러 곳에서 소설을 “표현(70 면)”이라고 한 것이나, “철두철미 묘사(73 면)”라고 한 것, 그리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 주는 이야기(73 면)”라고 한 것들도 모두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점만 보고 이태준이 문학을 순전히 심미적인 구성물로 보고 그것에서 사상성이나 사회의식을 배제했다고 본다면 그것은 속단이다. 하기는 그가 “문학은 사상이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이기를(52 면)” 바란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의 뜻도 문학이 사상을 배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 구현되기보다는 감정으로 구현된다는 것이다. 그 점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문예작품에서는 사상보다는 먼저 감정이다. 사상으로 명문화하기 이전의 사상, 즉 사고를 거친 감정이라야 할 것이다. 흔히 작품의 생경성은 이미 상식화한 사상을 집어넣는 데 있다. 그러므로 사상가의 소설일수록 너무 윤리적이 되고 만다. 그런 작품은 아무리 대가의 것이라도 철학의 삽화격이어서 문학으로는 귀빈실에 참렬(參列)하지 못할 것이다. (63 면)

인용문의 첫 문장도 문학에는 사상과 감정 중에 후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지, 사상은 필요치 않고 감정만이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태준이 말하는 감정은 이성적 사고가 제거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적 내용이 그 안에 용해되어 있되 그것이 감성을 통해 전달되고 감지될 수 있는 것, 엘리엇(T. S. Eliot)가 말한 소위 “통합된 감수성(unified sensibility)”이 빚어내거나 감지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다. 이태준에게 사상이 문제시 되는 것은 그것

이 작품의 심미적 구조와 맞지 않고 따로 놀 때인 것이다.

이태준이 사상이라고 지적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사회의식, 내지 정치의식일 것이다. 그런데 이태준 자신이 “사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대중은? 물론 이것을 생각하여야 한다. (50 면)”라고 작가가 사회의식을 가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 그 자신이 일제 치하에 있던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당연히 억압에 대한 저항의식이나, 동포들이 당하는 수탈과 학대에 대한 울분이 많았던 사람이다. 실제로 그의 작품 중에서 항일정신을 강하게 표출하는 것들이 여럿 있다. 이런 작품들을 읽어보면 그가 누구 못지 않게 강한 사회의식을 갖고 있었던 작가였음은 의심할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런 부류의 작품들에서도 그의 작중인물들은 울분을 토로하지만 그 울분을 어떤 적극적인 행동으로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점을 들어 그의 사상의 불철저성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그의 정치의식의 결여보다는 그의 문학관에 기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가 문학은 “사상 보다는 먼저 감정이다”라고 한 말은 문학의 효능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그는 문학은 감동을 주는 것이지 독자로 하여금 어떤 구체적 행동을 하게 하거나 그에게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듯이 이태준은 사상이나 사회의식을 문학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표현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한도를 벗어나면 문학은 예술이 아니라 생경한 구호나 이념의 선전문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런 문학관을 가진 예술가와 식민지의 지식인이 양립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그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예술을 통해서 그가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들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가령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망가진 삶을 그려서 조선 민중의 참상을 드러낸다는지, 좌절한 지식인을 통해 울분을 표출한다는지, 우리 옛것의 훌륭함을 보여서 민족의 긍지를 되살린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말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그런 것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글쓰기는 그에게 이중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하나는 예의 다른 문인, 비평가들이 가하는 이념적 비판이었고, 다른 하나는 친일하기를 끊임없

이 회유하고 협박해 온 일제의 압력이었다. 그러나 “까마귀”를 쓸 당시 이미 조선문단에서 확고한 지위를 누렸던 그에게 전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 그 자신이 항일정신이나 민족주의적 신념 면에서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그런 비판은 별로 과념하지 않았다. 그러나 후자, 즉, 일제의 압력은 그를 정말 어렵게 하였다. 나중에 그가 결국 붓을 꺾고 초야로 숨어 버리고 만 것도 그것 때문이었던 것을 보아도 그 압력이 얼마나 가혹하고 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까마귀”를 읽으면 표면적인 의미 층 밑에 다른 의미의 층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태준이 “까마귀”를 통해 그의 글쓰기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면 허두에 주인공인 소설가가 “괴벽한 문체를 고집하여 독자를 널리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각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된다. 우선 “자기의 것을 자기의 투로” 쓴다는 것이 “괴벽한 문체를 고집[한다]”로 축소된 것은 이 작품에 적합한 독법이 무엇인가를 암시한다. 이태준은 문학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노골적인 논의나 직접적인 설명을 적극 반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자신의 문학을 소재로 삼을 때에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 소재가 작품에 흡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변용해야 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괴벽한 문체”는 바로 그런 필요에 맞춘 그의 문학의 은유인 것이다. 그것은 일제에도 굴복하지 않고 소위 의식주의자들과도 타협하지 않는 외로운 자기만의 문학을 뜻하는 것이다. 이 작품이 까마귀가 지니는 함의를 이용하여 문학적 효과를 성취하는 상징성이 강한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글을 이처럼 비유적으로 읽어야 할 당위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독법으로 읽으면, 소설가가 처한 경제적인 곤궁함은 이태준이 일제의 억압하에서 글을 써야했던 열악한 상황을 대변한다. 소설가가 마당에 선 낙엽진 나무들을 ‘무장해제를 당한 포로들처럼(19 면)’이라고 특별히 따옴표 안에 넣어 강조한 것은 이태준 자신이 식민지 작가로서 느꼈던 속박과 무력감을 강하게 부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라는 말은 전쟁과 적대관계를 연상시키면서 그를 꺾박하고 있는 자는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하는 적이라는 암시까지 준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들을 “다시 한참 바라보[는](19

면)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나목들이 장차 겪을 겨울처럼 점점 더 혹독해질 상황을 예감하는 소설가의 우울한 심경을 감지하게 한다.

또 추성각에서 만난 여인도 이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저두 선생님 독자예요. 꽤 충실한.....(24 면)”이라는 그녀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소설가가 그녀와 함께 “자신의 빈한한 예술을 이야기하고 싶었다(25 면)”고 하는 발언은 그녀가 이태준을 이해하는 독자이며 나아가 그가 그의 예술을 이해시키고 싶어했던 조선의 민중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해준다. 죽을병에 든 여인과 일제의 압제로 인해 사경을 헤메는 조선 민중 간의 상동관계는 이런 해석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

이런 구도 속에 까마귀가 죽음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여인이 까마귀 때문에 악몽을 꾸고 죽음의 공포에 싸이자 소설가는 그녀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덜어 주기 위해서 그것을 죽인다. 그가 그녀의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그녀의 공포를 제거함으로써 그녀가 위안을 받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식민 통치하의 작가로서 그가 민중에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암시해 준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소설가가 순전히 여인을 위해 까마귀를 죽이는 것 같지가 않다. 다시 말해서 그가 남의 싸움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은 것이다. 까마귀를 죽일 때의 묘사가 그런 해석을 가능케 해 준다.

그는 슬그머니 겁이 나기도 했으나 몽우리들을 집어 공중의 놈들을 위협하여 도랑에서 다시 더풀 올려놓는 놈을 쫓아들어가 곧은 발길로 먹투시를 차 내던졌다. 화살은 빠져 떨어지고 까마귀만 대여섯 간 밖에 나가떨어지며 킁 하고 뼈들적 거렸다. 다시 쫓아가 발길을 들었으나 그때는 벌써 까마귀는 적을 볼 줄도 모르고 덜어누르는 죽음과 싸울 뿐이었다.(33 면)

앞서 나무들을 포로로 묘사하여 적을 떠올리게 하였는데, 여기서도 소설가와 까마귀는 서로 적이다. “놈을 쫓아들어가 곧은 발길로 먹투시를 차 내던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새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적과 사생결단을 하는 듯한 표현이다. 그것은 자기의 목숨에 위협을 가하려는 적에나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증오와 적의로 격앙된 사람의 행동이다. 이로 보아 소설가는 분명히 여인을

위해 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까마귀는 그들 공동의 적이 된 것이다.

사실 소설가의 처지가 여인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여인이 처음 소설가의 방에 들어와 앉았다 간 후의 장면에서부터 암시되어 있다. 그녀가 체온과 함께 “병균”을 남기고 간 날밤 그는 “몹시 우울[해](27 면)” 한다. 이제 그녀와 그는 병균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가 우울해 하는 이유는 그가 병균에 감염되었을까하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연민 때문이지만, 그가 “몹시” 우울해 한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녀의 불행에 그가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녀를 위로할 방도를 궁리하는데 그 사이에 끼어 드는 짧은 삽화가 있다. 그는 벽장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 쥐들을 쫓고 말라 빠진 빵 조각을 꺼내면서 다른 손으로 산에서 주어 온 토끼의 배설물을 만진다. 그는 자기의 배설물도 것처럼 가랑잎 덩어리 마냥 담박해졌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좀 더 깨끗하고 향기롭게 살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슬퍼한다.

여기서 그의 가난은 토끼의 배설물로 더 할 수 없이 극명하게 대변되고 있다. 그의 가난을 이태준이 처한 시대적 어려움으로 치환하면 그것은 그가 식민적 상황에서 글을 쓰는 어려움이 극에 달해 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설가의 불행이 여인의 불행과 이렇게 간단없이 이어지는 것은 그들의 불행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임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이태준이 겪고 있던 고난은 당시 조선민중이 겪던 고난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설가가 까마귀에게 왜 그렇게 강한 적개심을 갖는지 자명해 진다. 까마귀는 단순한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겪는 불행의 원인, 즉 억압적인 식민상태의 상징인 것이다.

소설가가 노력한 보람도 없이 여인이 죽고 만다. 그녀의 죽음은 작품의 허두에 소설가가 예감했듯 더욱 혹독해질 고난을 예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까마귀의 울음소리로 소설이 끝을 맺는 것은 그런 어려운 세월이 언제 가야 끝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미래를 말해 준다.

3.

이상과 같이 “까마귀”를 분석해 보면 그것은 “The Raven”과는 여러 면에서 대조적인 작품임이 드러난다. 이태준은 이 단편에서 작가로서 자기의 어려움을 비록 비유적인 방법으로 표출하고 있으나, 그래도 그는 그가 처한 엄혹한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폭압적인 식민지 치하의 작가로서 그가 가야할 험난한 길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포우는 그의 시에서 괴로운 현실을 잊기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지만, 이태준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괴로운 것일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자기가 할 일을 그 안에서 꾀꿉이 해 나가겠다는 굳은 신념과 강인한 의지를 내보인다. 그래서 비록 작품이 결국 까마귀의 울음으로 끝나더라도, 우리는 소설가가 겪을 고통에 동정하되 그가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라고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음식을 집으며 다른 손으로 토끼의 배설물을 만져보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의 수도자와 같은 극기와 근엄한 기율을 보았기 때문이다. 거기서 우리는 “고독하되, 불리하되, 자연이 준 자기만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예술가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선언했던 결연한 이태준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또 포우는 환상과 괴기에 탐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비현실적인 미를 추구했다면, 이태준은 어디까지나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서 사실적인 차원에서 미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 단적인 예로 레노어는 죽어서 없는 여인이기에 미화되었지만, 폐결핵을 앓는 여인은 죽음 앞에서도 발랄함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인인 것이다. 또 포우는 죽음도 미화하려고 했다면 이태준의 언젠가 죽음을 거부하고 삶을 긍정하려 하였다. “The Raven”의 화자는 결국 까마귀에게 굴복하고 마는데 반해, “까마귀”의 주인공은 까마귀를 죽인다는 것이 그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이태준이 “까마귀”를 쓰면서 포우의 “The Raven”으로부터 빌어 온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전체적인 열개를 이루는

것들뿐이고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작품을 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태준은 “까마귀”에서 포우의 시를 창조적으로 변용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Abstract>

Edgar Allan Poe's Influence on Lee, Tae-jun's "The Crow"

Kim, Myong-Yol

It is evident that Poe's "The Raven" influenced Lee, Tae-jun's short story "The Crow"; the hero of the story mentions Poe, "The Raven," and Lenore in a soliloquy. Besides this internal evidence, one of Lee's articles for a daily newspaper hints at his indebtedness to the poem for the conception of the story. Also a close reading of Lee's other writings shows that he was well aware of Poe's works--not only his popular tales and poems but also such critical writings as "The Philosophy of Composition" and his review of "Hawthorne's *Twice-Told Tales*." This paper purports to examine the text of Lee's story to determine the extent of his indebtedness to Poe's poem and to find out what he created himself for the story.

As Poe did in "The Raven," Lee features in his story a crow as a bird of ill omen and a female character who is dying young. But the similarity between the two works ends there. Instead of Poe's somber, fantastic, and grotesque atmosphere and bizarre estheticism, Lee opts for a very realistic vein for the narrative--his heroine is not a personification of ideal beauty, nor is his bird capable of human speech.

Lee's story has two layers of meaning. At the surface level, it is a story of a poor writer who retreats to a secluded village where he befriends a young woman for a short period of time before she dies of tuberculosis. But

the story can also be read as a metaphor for the difficulties Lee faces as an artist harassed by Japanese colonialization on the one hand and ideological conflicts on the other. Read in this way, it reveals Lee's determination to brave the difficulties that loom large in his future and to maintain his artistic integrity with stoic fortitude.

The analysis shows that Lee's indebtedness to Poe's poem is not substantial. He borrows from it only the basic frame for his story and he fills it with his own stuff. And while Poe tends to escape into fantasy and arcane lore, Lee is firmly anchored to the hard realities of his days. So all in all, we can conclude that Lee's story is a creative variation, not a mere prose rendition, of Poe's poem.

Key Words : influence, estheticism, colonialism, creative variation